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 활용하세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공개

결정세액 확인 후 전략 짜야

연봉 5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인 직장 인 A씨가 올 해 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액 은 얼마일까.

올해 신용카드공제 112만5000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10월까지 연금저축 불입액 120만원 등을 납세자연맹의 '환급 계산기'에 입력한 A씨의 결정세액은 99만6320원(지방소득세 포함)이다.

소득공제장기펀드에 300만원을 불입한 A씨는 금융사로부터 연금저축에 400만원 을 채우고 개인형퇴직연금(IRP)에 300만 원을 넣으면 절세액이 최대가 된다는 조언 을 들었다

납세자연맹의 환급계산기에 따르면 A 씨는 IRP에 23만8000원만 불입하면 결정 세액 한도에서 최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절세'를 내건 다양한 금융상품 앞에서 고민하는 납세자 들을 위해 최적의 절세 방안을 제시해 주 는 계산기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6일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를 홈페이지(www. koreatax.org)에 올리고 연말정산 전략

예탁원·국민·하나은행

'잠자는 주식' 찾아주기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B HOME > 세테크계산기 >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 계산기 2014년 개산기 연말정산 120% 환급 계산기(2015년 귀속) ∨ 연말정산 120% 환급 계산기 ■ 입력하기 ∨ 양도세 계산기 - 주택 양도서 - 분양권 양도서 총급여를 처음 입력시 정확하게 입력하기 바라며, 총급여를 수정입력시에는 - 상가 양도세 29.부녀자, 31.국민연금, 33-가.건강보험료, 33-나.고용보험료, 41.투자조합출자, 42.신용카드 등, -토지 양도세 63,의료비, 65,기부금을 수정입력 하셔야 합니다. 아래내용을 입력한 후 맨 밑의 〈결과보기〉를 클릭하시면 환급예상액 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기혼 외벌이 ○ 기혼 맞벌이 ○ 미혼 ◆연막전사자동계산기 이용을 위한 개인전보 제공에 동의한 □ [전문보기] 21. 총급여 22, 근로소득공제

한국납세자연맹의 '환급 계산기' 캡처 화면.

을 공개했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환급은 결정 세액 한도에서 받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적 으면 절세효과가 큰 금융상품이라도 환급 효과가 떨어진다"며 연말정산 전략을 짜 기 전에 결정세액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강조했다.

결정세액이란 한 해 동안 받은 총급여

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을 뜻한

월급을 받을 때마다 미리 낸 세금(기납 부세액)이 연말정산에서의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만큼 돌려받고(환급세액), 적으 면 더 내야(추가납부세액) 한다.

그러나 근로소득자들은 자신의 결정세 액을 쉽게 알 수 없다. 이날 연맹이 공개한 환급계산기는 결정 세액을 계산해 주고, 이에 맞춰 금융상품 별로 최적의 불입액과 절세액을 제시하는 기능을 갖췄다.

연맹은 특히 연봉이 매우 적거나, 부양 가족이나 의료비가 많다면 결정세액이 아 예 '0'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잘 확인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연맹 분석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1301만명 가운데 59%인 773만 명이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다.

연맹은 또 연봉 3000만원대 초반 이하의 미혼 근로소득자는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해야한다고 밝혔다.

표준세액공제는 건보료,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대상 지출이 거의 없는 경우 납세자 선택에 따라 정액(13만원)을 세액공제로 차감해주는 제도다.

납세자연맹 환급계산기는 개인에 따라 일반적인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나은지,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나은지 판 단해 준다.

연맹이 연봉 3000만원 근로자를 기준으로 이날 시현한 결과, 건보료와 고용보험료 등을 포함한 결정세액은 32만원이었으나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면 26만원으로줄어들어 세 부담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광록기자 kroh@·연합뉴스

폭스바겐코리아, 12만대 내년 초 리콜

"보상 문제 독일 본사와 협의할 것"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6일 정부가 폴크스바겐 티구안의 EA189 엔진에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하자 리콜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섰던 데 대해 죄송스러운 입장이고 정부의 결과가 나온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리콜을 포함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고객에게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유로 5 차량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은 이미 그룹 차원에서다 밝혀서 기존에 알려진 내용을 그대로확인한 수준"이라며 "오히려 저희가 유로 6 차량에는 문제가 없다고 일관되게주장해왔던 것이 환경부 조사에서도확인돼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폭스바겐코리아 측은 정부의 '판매정지명령'과 관련, 문제가 된 차량은 구형이

어서 더 이상 판매하지 않고 있기 때문 에 추가로 조치할 내용은 없다고 전했

이번에 리콜 명령이 내려진 15개 차종 12만5522대에 대해서는 이르면 내년 초 리콜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폴크스바 겐그룹 본사 차원에서 글로벌 리콜 개시 가 1월부터 시작된다고 발표한 것을 감 안한 일정이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리콜은 준비 과정에서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언제 진행된다는 것을 밝히긴 어렵다"면서 "시기를 확정해서 말하긴 곤란하지만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독일 본사 차원에서 다른 나라와 형평성을 맞춰 최대한 이른 시일 내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고추 생산량 증가세…참깨는 2년 연속 감소

전남 참깨 2932t 전국 최고

올해 고추 생산량은 증가세로 돌아섰 지만 참깨 생산량은 2년 연속 감소했다. 국내에서 참깨가 가장 많이 생산된 지역 은 전남이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고추 생산 량은 9만7697t으로 지난해보다 14.8% 증가했다. 지난해 고추 생산량은 27.8% 감소했다.

올해 고추 재배 면적은 3만4500ha로 지난해보다 4.4% 줄었지만 단위면적(10 a)당 생산량은 283kg으로 지난해보다 19.9% 늘어났다.

통계청은 고추 재배 면적이 소폭 감소 했지만 개화기 및 수확기의 기상 호조와 병충해 감소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크 게 증가해 전체 고추 생산량도 늘어났다 고 설명했다.

시·도별 고추 생산량은 경북이 2만 4214t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참깨 생산량은 1만1678t으로 지 난해보다 3.9% 줄었다. 참깨 생산량 은 지난해에도 감소했다. 참깨 재배 면 적은 2만5100ha로 지난해보다 11.4% 줄었지만 단위면적(10a)당 생산량은 46 kg으로 7.0% 증가했다.

참깨의 꽃이 피고 꼬투리가 형성되는 7~8월의 기상 여건이 양호해 생육이 원활했고 태풍 및 장마로 인한 수·습해 피해가 크게 줄어 참깨 생산량이 증가했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시·도별 참깨 생산량은 전남이 2932t으로 가장 많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12월 11일까지 캠페인 한국예탁결제원은 KB국민은행, KEB 하나은행과 함께 오는 12월 11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은 KB국민은행, KEB 하나은행과 함께 오는 12월 11일까지 '2015년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한다.

이번 캠페인은 금융감독원이 추진하는 '휴면 금융 재산 등 주인찾아주기 종합대 책'의 하나로 진행된다.

지난 2014년도에 이어 2015년도에도 대행 3사가 공동으로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주주는 보다 편리하게 미수령 주식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기대된다.

미수령 주식은 주주명부상 주주(발행 된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무 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발생한 주식을 이사 등의 사유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상속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찾 아가지 않고 대행 3사가 보관하고 걸 말한 다

2015년 미수령 주식 규모(명의개서대행 3사 합계)는 상장사 기준 주주수 약 2만명, 시가 약 800억원 수준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랑의 손맛 김치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유신열)는 지난 25일 백화점 직원식당에서 '2015 사랑의 김장 담그기' 나눔활동을 펼쳤다. 〈광주신세계백화점 제공〉

폐강되도 환불 안돼? 민간자격증 교육, 약관 꼭 따져야

한국소비자원은 26일 민간자격증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매년 1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201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한 자격증 관련 불만상담은 총 9060건에 달했다.

이 중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온 501건을 분석한 결과 자격증 학원 관련 피해 (일방적 폐강·환불 거부 등) 상담 사례가 258건으로 전체의 51.5%에 이르렀

이어 '취업·고소득 보장 등 허위·과 장광고', '자격증 교재의 품질 및 관련



른 피해 사례 는 각각 24. 9%, 23%를 차지했다. 이처럼 민

계약'에 따

간 자격증과 관련한 불만 상담이나 피해가 끊이지 않지만, 새로 등록된 민간 자격증은 2013년 2748개에서 지난해 6253개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명칭이 같거나 비슷한 자격증이 중복 으로 등록돼 소비자들의 혼란을 유발하 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신업체

이앤지醯방수주